

미술치료사의 자기탄력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수행불안의 매개효과*

김 은 지** · 박 보 람***

본 연구는 미술치료사의 자기탄력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수행불안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미술치료사 137명에게 수집한 자료를 Baron & Kenny(1986)의 매개 효과 통계 방법을 통해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가설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치료사의 자기탄력성이 자기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둘째, 미술치료사의 수행불안이 자기탄력성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술치료사가 가져야 할 치료사적 자질 중 자기탄력성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고 나아가 치료사의 자기탄력성이 주요한 치료적 요인임을 밝혔으며, 치료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안을 다루는 치료사 변인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주요어 : 미술치료사, 자기탄력성, 자기효능감, 수행불안, 매개효과

* 본 논문은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예술심리치료학과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예술심리치료학과 미술심리치료학 석사과정

*** 전주대학교 예술심리치료학과 교수, bb4013@hanmail.ne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미술치료는 심리치료에서 파생된 새로운 분야로 미술과 치료, 두 가지의 의미가 모두 포함된 또 다른 하나의 통합체이다(Rubin, 2006; Wadson, 2008). 미술치료에서는 심리치료에서 사용하는 언어 대신 미술 매체를 표현과 의사소통의 기본 방식으로 사용한다(The British association of Art Therapy: BAAT, 2017).

치료 도구로서 미술 매체를 사용하게 되면서, 미술치료에서는 ‘내담자’와 ‘치료사’ 그리고 ‘내담자와 치료사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삼각구도 외에도 내담자와 치료사 그리고 미술이라는 또 다른 삼각구도를 구성하게 되었다(권석만, 2012; Schaverien, 2000). 그렇기 때문에 미술치료에서는 내담자와 치료사라는 기본적인 치료적 관계뿐만 아니라 내담자와 미술, 치료사와 미술이라는 미술치료만의 특수한 치료적 관계를 형성한다(Edwards, 2014; Schaverien, 2000). 따라서 미술치료 상황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에는 내담자의 성별이나 진단적 특성과 같은 내담자 요인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미술매체, 작업의 장소, 작업 상황, 작업 과정 등의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은 돌발적인 변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박현주, 서명옥, 2009; 전순영, 2011; Rubin, 2006). 반면에, 미술치료사는 치료적 상호작용을 결정짓는 요인으로서, 치료적 상호작용 내에서 마치 등식의 상수처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Wadson, 2008). 또한, 치료적 관계 내에서 치료사는 치료적 도구로 사용되며 치료성가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강석영, 2008; 김권영, 금명자, 2009; 박수영, 최한나, 2013; Corey, 2012). 특히, 치료사의 성격이나 태도 등의 개인적 변인과 치료기법이나 개입의 적절성, 치료적 관계 형성 등의 전문적 변인으로 이루어진 치료사적 자질들은 치료사가 치료적 도구로서 기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권석만, 2012; Popescu, 2012). 또한, 다양한 선행 연구를 통해 치료사 요인이 치료적 관계 및 치료성가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여러 치료사 요인 중 자기탄력성은 문제 상황에 대해 유연하고 적응적으로 대처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능력을 뜻한다(김혜성, 1998; Borysenko, 2011; Nicholson & Clark-e, 2010). 또한, 변화하는 환경적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스트레스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기통제 수준을 수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개인의 역동적인 역량을 포함한다(Block & Block, 1980). 따라서 자기탄력성은 치

미술치료사의 자기탄력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수행불안의 매개효과(김은지·박보람)

료사 요인 중 개인적 변인에 해당한다(김현미, 최인화, 권현용, 2010).

자기탄력성은 자기통제와 자기조절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서 자기탄력성이 높다면 자신의 자아를 통제하여 적극적인 문제해결력을 갖게 되고(신은정, 2016; 왕미정, 2013; Block & Block, 1980), 실패에 의연해지며 실패를 자신의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Nicholson & Clarke, 2010). 따라서 높은 수준의 자기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미술치료사는 미술치료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부터 적응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치료사의 자기탄력성은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에 도움을 주어,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소진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오숙경, 박희현, 2013). 그리고 치료사의 안정성과 융통성, 자신감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김광웅, 최명신, 김현주, 2005). 즉, 다양한 요인들이 돌발적 변수로서 작용할 수 있는 치료 상황에서 자기탄력성이라는 치료사적 자질은 치료사의 적응력을 높이며, 치료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목표달성 상황에서 어떠한 성과 또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이나 과정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된다(Bandura, 1977; Bandura, 1994). 자기효능감은 인간의 기능을 조절하고,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얼마나 노력할 것인지 또는 시련이 생겼을 때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여 대처할 것인지와 같이 개인이 행동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Bandura, 2004; Zimmerman, 2000). 이러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치료사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어려움이 닦혔을 때에도 과제를 포기하지 않고 도전적인 태도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인다(최철환, 1997). 뿐만 아니라,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과 스트레스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어, 예상치 못한 실패가 발생했을 때에도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한다(Bandura, 2004). 자기효능감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자기효능감을 치료성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치료사의 전문적 변인으로 보고하였다.

치료사 자기효능감은 치료사가 가진 인지적·행동적·사회적 기술들을 통합하여 상담의 수행에 적용하는 기제로서 작용한다. 이러한 치료사 자기효능감이 높은 치료사는 다각적 과제들이 주어지는 치료환경에서 치료사 자신이 가진 기술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효과적인 치료를 수행할 수 있다(Larson & Daniel, 1998). 또한, 치료 상황 안에서 치료기법의 활용이나 치료적 개입과 같은 치료사가 가진 전문적 변인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치료성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오숙경, 박희현, 2013).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현미, 최인화, 권현용(2010)은 자기탄력성의 낙관적 태

도가 자기효능감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활동기술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오숙경, 박희현(2013)은 자기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이 상담사의 소진에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기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은 서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서 자기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치료성과를 효과적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발달수준, 자기탄력성, 자기조절능력 등을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하였다(김봉구, 김윤주, 2017; 김채연, 최외선, 김갑숙, 2014). 그러나 심리적 소진, 상태불안, 평가불안 등은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하였다(김동민, 2012; 정푸른, 2016; 조문주 2007; 홍수현, 최해림, 2001).

불안은 개인의 내적 과정을 통해 생성되어 적응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Epstein, 1972). 불안의 수준이 높을수록 치료사는 방어적이며 경직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Bandura, 1956). 치료사의 불안은 역전이 반응을 불러일으킨다(Yulis & Kiesler, 1968; Van Wagoner, Gelso, Hayes & Diemer, 1991). 불안이 심화되면 근육 경직과 집중력 저하 등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며(이지연, 2011), 치료사의 인지과정에 영향을 미쳐 내담자와의 관계 형성에서부터 치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홍수현, 최해림, 2001; Menninger, 1990). 특히, 임상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급성 수행불안(acute performance anxiety)은 초보치료사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치료사가 내담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방해하고 치료사의 자기몰입을 촉진한다. 이렇게 촉진된 치료사의 자기몰입은 내담자의 작업을 방해하고 관계를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치료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kovholt & Rønnestad, 2003).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불안은 치료사의 인지과정에 영향을 미쳐 치료 초기의 관계형성 단계부터 전체 상담의 효율성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홍수현, 최해림, 2001). 이지연(2011)은 치료 상황에서 치료사의 불안이 심화되면 근육 경직과 집중력 저하 등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며, 부정적 경험은 곧 치료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에, Renik(1995)는 치료사의 불안이 치료 과정에서 치료사적 역량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막거나 내담자에게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치료사가 치료 상황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균형추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치료사가 자신의 불안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임상상황에서 경험하는 불안은 치료사의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나, 치료사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선행연구에서의 정의를 참고하여(표경식 등, 1998; 이소라, 2014; 이지연, 2011; 이훈구, 2004;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APA,

미술치료사의 자기탄력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수행불안의 매개효과(김은지·박보람)

2013; Debra, Richard, Harlan & Cynthia, 2000; Leitenberg, 2013), 치료사가 미술치료 임상 상황에서, 또는 임상에 대한 수행이 예견된 상황에서 경험하는 불안을 수행불안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미술치료현장에서 나타나는 불안을 치료적 요인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지 규명해보고자 한다.

불안은 그 특성에 따라 특성불안과 상태불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Spielberger, 1966). 그 중 상태불안은 특정 상황에서 경험하는 불안을 의미하며, 개인이 가진 순간의 정서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경험된다(Spielberger, 2013).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수행불안은 개인이 어떤 특정한 과제 수행 상황에서 긴장이나 걱정, 두려움 등을 경험하는 일시적인 불안 반응이라는 점에서 상태불안의 범주에 포함된다(표경식 등,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의한 치료사가 임상현장에서 경험하는 불안도 상태불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선행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불안은 치료성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자기효능감이나 상담기술, 공감수준, 자기탄력성 등의 요인들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다(강석영, 2008; 임은희, 2016; 조문주, 2007). 정경아(2016)는 부정적 정서가 자아통제 수준을 경직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탄력적인 자아통제력이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켜 불안과 자기탄력성이 서로 상쇄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자기탄력성이 불안에 대한 보호적 변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엄외순(2002)은 불안과 자기효능감의 부적 상관관계를 보고하면서, 상담 장면에서 발생하는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강진구, 연문희(2005)는 단기상담이 상담자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상태불안을 저하시켰다는 결과를 보고하면서 자기효능감과 상태불안의 부적 상관관계를 밝혔다.

선행연구를 통해 각 요인 간의 관계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치료사의 자기탄력성이 높을수록 수행불안은 낮아지며 자기효능감은 높아진다. 반대로, 수행불안이 낮을수록 치료사는 높은 자기효능감을 갖게 된다. 즉, 자기탄력성은 자기효능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수행불안은 자기효능감과 부적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자기탄력성이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수행불안을 통해 자기효능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술치료사를 대상으로 하여, 수행불안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미술치료사의 자기탄력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미술치료사가 가져야 할 치료사적 자질 중 자기탄력성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나아가 치료사의 자기탄력성이 주요한 치료적 요인임을 밝혀, 치료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안을 다루는 치료사 변인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미술치료를 대상으로 자기탄력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수행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치료사의 자기탄력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미술치료사의 자기탄력성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 수행불안이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연구자는 미술치료 관련 전공으로 학사를 졸업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미술치료사 혹은 학회나 협회 등의 기관을 통해 기관에서 요구하는 수련과정을 거쳐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미술치료사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아래의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137)

구 분		빈도	백분율(%)
연령	20대	43	31.4
	30대	33	24.1
	40대	38	27.7
	50대 이상	23	16.8
학력	학사 졸업	29	21.2
	석사 과정	47	34.3
	석사 졸업	41	29.9
	박사 과정 이상	20	14.6
임상대상	아동	90	40.2
	청소년	66	29.5
	성인	54	24.1
	노인	14	6.3
	소계	224	100.0

미술치료사의 자기탄력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수행불안의 매개효과(김은지·박보람)

구 분	빈도	백분율(%)
1년 미만	36	26.3
1-3년	57	41.6
임상경력		
4-6년	16	11.7
7-9년	13	9.5
10년 이상	15	10.9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총 105문항으로,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질문지 4문항을 포함하여 자기탄력성 척도 27문항, 수행불안 척도 30문항, 자기효능감 척도 4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변별성을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연구에서 사용되는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자기탄력성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탄력성 척도는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척도이다. 해당 척도는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의 총 3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5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한다. 점수분포는 27-13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의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5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하위요인 별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면 통제성의 신뢰도 계수는 .70, 긍정성의 신뢰도 계수는 .83, 사회성의 신뢰도 계수는 .71이고, 전체 신뢰도 계수는 .78 으로 나타났다.

2) 자기효능감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효능감 척도는 양명희, 김성희(2011)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것으로, Likert식 5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한다. 점수분포는 44-2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양명희, 김성희(2011)의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6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하위요인 별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면 상담기술 자기효능감의 신뢰도 계수는 .93, 상담태도 자기효능감의 신뢰도 계수는 .70, 상담위기대처 자기효능감의 신뢰도 계수는 .94 이다. 전체 신뢰도 계수는 .93 으로 나타났다.

3) 수행불안 척도

본 연구에서는 미술치료사들이 미술치료라는 특정한 상황에서 임상을 수행하는 동안, 또는 임상에 대한 수행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미술치료사가 경험하는 불안이라는 수행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이지연(2011)이 음악치료사의 임상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임상불안 척도(The Clinical Anxiety Scale)를 사용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미술치료 상황에서 미술치료사가 경험하는 불안에 대해 측정하고자 하므로, 연주불안에 해당하는 항목을 15년 이상의 임상 및 훈련 경험을 가진 전문 미술치료사에게 감수를 받아 미술치료 상황에 알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측정도구의 변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임상불안 척도는 수행불안, 관계불안, 연주불안의 총 3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4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를 사용한다. 점수분포는 30-1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불안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이지연(2011)의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3 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하위요인 별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면 수행불안의 신뢰도 계수는 .79, 관계불안의 신뢰도 계수는 .90, 연주불안의 신뢰도 계수는 .89 이고, 전체 신뢰도 계수는 .90 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연구자는 현재 미술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미술치료사를 대상으로 미술치료 관련 학술대회나 워크샵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거하였다. 자료 수집은 총 3차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2017년 8월 6일부터 8월 27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2017년 8월 18일부터 8월 27일까지 미술치료 관련 워크샵과 학술대회에 참여한 미술치료사들에게 설문지를 직접 배부하고 현장에서 회수하였다.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회수되지 않았거나 설문지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63부의 설문을 제외한 총 137부의 자료가 연구 자료로 사용되었다.

4. 자료처리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먼저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각 변인의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미술치료사의 자기탄력성, 수

미술치료사의 자기탄력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수행불안의 매개효과(김은지·박보람)

행불안, 자기효능감과 그 하위요인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를 구하였다. 그리고 자기탄력성, 수행불안,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및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미술치료사의 자기탄력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수행불안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 검정 3단계 조건을 실시하고자, 단순 회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Sobel(1982)의 Sobel test를 실시하여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를 위한 기초분석으로 각 척도의 최솟값, 최댓값, 평균 및 표준 편차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자기탄력성은 최소 76점에서 최대 126점($M= 103.88$, $SD= 9.31$)점으로 나타났다. 수행불안은 최소 30점에서 최대 91점($M= 46.55$, $SD= 12.38$)점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최소 104점에서 최대 209점($M= 154.36$, $SD= 20.05$)점으로 나타났다.

<표 2> 척도의 기술통계 (N=137)

척도 (가능한 점수 분포)	Min	Max	M	SD
자기탄력성 (27-135)	76	126	103.88	9.31
통제성 (9-45)	21	44	34.12	3.97
긍정성 (9-45)	19	44	35.49	4.54
사회성 (9-45)	22	43	34.27	4.12
수행불안 (30-120)	30	91	46.55	12.38
수행불안 (12-48)	11	36	17.40	5.11
관계불안 (12-48)	12	40	18.22	5.58
연주불안 (6-24)	6	18	9.23	3.26
자기효능감 (44-220)	104	209	154.36	20.05
상담기술 효능감 (13-65)	36	94	66.25	10.16
상담태도 효능감 (19-95)	30	65	49.78	5.83
상담위기대처 효능감 (12-60)	18	60	38.33	8.36

2.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자기탄력성, 수행불안,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미술치료사의 자기탄력성, 수행불안,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탄력성과 수행불안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 = -.382, p < .001$). 이는 미술치료사의 자기탄력성이 높아질수록, 수행불안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자기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 = .364, p < .001$). 이는 미술치료사의 자기탄력성이 높아질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수행불안과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 = -.413, p < .001$). 이는 수행불안이 낮아질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그 결과는 아래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자기탄력성, 수행불안,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변수	1	2	3
1. 자기탄력성	1		
2. 수행불안	-.382***	1	
3. 자기효능감	.364***	-.413***	1

*** $p < .001$

다음으로 <표 4>에 제시한 자기탄력성, 수행불안,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를 보면, 자기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통제성은 수행불안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p < .01$), 긍정성과 사회성은 수행불안의 하위요인 중 관계불안을 제외한 수행불안, 연주불안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p < .05$). 자기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를 보면, 자기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통제성과 긍정성은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상담위기대처 자기효능감을 제외한 상담기술 자기효능감, 상담태도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p < .05$), 사회성은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p < .05$). 수행불안의 하위요인 중 수행불안은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p < .01$), 관계불안과 연주불안은 상담위기대처 자기효능감을 제외한 상담기술 자기효능감, 상담태도 자기효능감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p < .05$).

미술치료사의 자기탄력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수행불안의 매개효과(김은지·박보람)

<표 4> 자기탄력성, 수행불안,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 통제성	1								
2 긍정성	.259**	1							
3 사회성	.149	.163	1						
4 수행불안	-.419***	-.180*	-.209*	1					
5 관계불안	-.291**	-.121	-.036	.622***	1				
6 연주불안	-.321***	-.230**	-.200*	.556***	.260**	1			
7 상담기술	.369***	.186*	.227**	-.551***	-.439***	-.324***	1		
8 상담태도	.279**	.265**	.228**	-.321***	-.186*	-.218*	.532***	1	
9 상담위기대처	.094	.136	.207*	-.240**	-.087	-.132	.314***	.533***	1

* $p < .05$, ** $p < .01$, *** $p < .001$

3. 매개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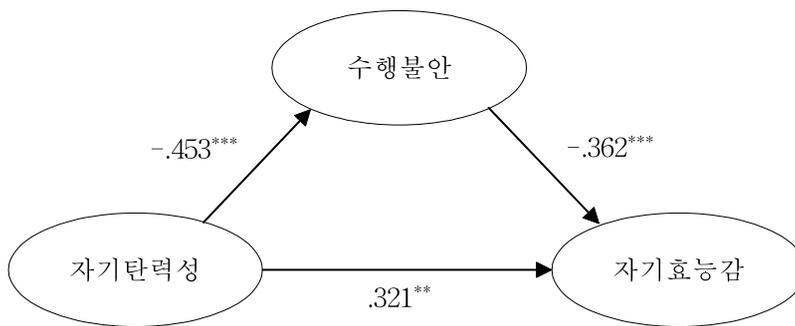
미술치료사의 자기탄력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행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건은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증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증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동시에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 때 3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면서 독립변수의 비표준화 계수가 2단계에서보다 3단계에서 유의하게 감소되면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 반면에 3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완전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 매개효과 검증은 앞서 진행한 세 번의 회귀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를 종합하여 아래의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미술치료사의 자기탄력성이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

단계		<i>B</i>	<i>SE</i>	β	<i>t</i>	(<i>adj R</i> ²)	<i>F</i>
1	자기탄력성 → 수행불안	-.453	.094	-.382	-4.810***	.140	23.132***
2	자기탄력성 → 자기효능감	.486	.107	.364	4.536***	.126	20.571***
3	자기탄력성 → 자기효능감	.321	.110	.241	2.916**	.209	18.937***
	수행불안 → 자기효능감	-.362	.093	-.321	-3.892***		

p*<.01, *p*<.001

수행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정한 결과, 1단계에서는 자기탄력성이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정하여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eta = -.382, p < .001$) 1단계 조건을 충족시켰다. 2단계에서는 자기탄력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정하여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beta = .364, p < .001$) 2단계 조건을 충족시켰다. 3단계에서는 자기탄력성과 수행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정하여 수행불안이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eta = -.321, p < .001$) 3단계 조건을 충족시켰다. 이 때 자기탄력성이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 = .241, p < .01$), 2단계에서보다 3단계에서 자기효능감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므로($\beta = .364 \rightarrow \beta = -.364$), 수행불안은 자기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을 부분적으로 매개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탄력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행불안의 매개효과 모형은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미술치료사의 자기탄력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수행불안의 매개효과

4.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추가로 Sobel(1982)의 Sobel test를 수행하였다. Sobel test에서는 비표준화 계수와 표준오차를 이용해 z 통계량을 계산하고, z 값의 절댓값이 $p < .05$ 수준에서 1.96 이상인 경우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6>에 제시된 Sobel test 결과를 살펴보면, z 값이 3.028($p < .001$)로 1.96 이상이므로, 자기탄력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행불안의 매개효과는 유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6> 미술치료사의 자기탄력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행불안의 매개효과 - Sobel test

			<i>B</i>	<i>SE</i>	<i>z</i>	<i>p</i>
자기탄력성	→	수행불안	-.453	.094	3.028	.000***
수행불안	→	자기효능감	-.362	.093		

*** $p < .001$

종합해보면, 미술치료사의 자기탄력성이 높을수록 수행불안이 낮아지며, 낮은 수행불안으로 인해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행불안을 경험하더라도 자기탄력성이 높은 미술치료사는 자기효능감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미술치료사를 대상으로 자기탄력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수행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에 따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치료사의 자기탄력성은 자기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즉, 미술치료사의 자기탄력성이 높아질수록 자기효능감의 수준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오숙경, 박희현(2013)과 신은정(2016)의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며 국내 미술치료사를 대상으로는 처음 보고되는 결과이다. 또한, 치료사적 자질이나 태도와 같은 개인적 변인의 성장은 치료기법이나 치료적 개입의 적절성

과 같은 전문적 변인의 성장으로 이어져 치료효과에 기여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한다(Lafferty, Beutler, & Crago, 1989; Popescu, 2012). 이러한 결과는 미술치료사가 자기탄력성과 같은 개인 내적 특성을 치료적으로 활용하였을 때, 자기효능감의 증진을 유발하고 나아가 치료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기탄력성 수준이 높은 미술치료사는 높은 자기효능감으로 치료의 수행과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미술치료사의 수행불안은 자기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미술치료사의 자기탄력성은 수행불안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수행불안은 자기효능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술치료사의 수행불안이 자기탄력성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치료현장에서 경험하는 불안을 치료사가 내적 요인을 통해 관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자기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적응적이고 목표 지향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한 Block과 Block(1980)과 Borysenko(2009)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또한, 불안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어 치료의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결과(임고운, 김지현, 2008; 임은희, 2016; 한영주 등, 2012; 홍수현, 최해립, 2001)를 지지한다. 따라서 자기탄력성이 높은 미술치료사는 수행불안을 경험하더라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치료사의 내적 요인을 통해 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안을 치료성과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관리할 수 있고, 나아가 치료사의 전문적 역량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해보면, 미술치료사의 자기탄력성은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과 동시에, 수행불안을 거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높은 자기탄력성을 지닌 미술치료사는 미술치료 상황에서 수행불안을 경험하더라도 자기효능감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고, 반대로 수행불안을 저하시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임상상황에서 경험하는 불안의 대안으로서 미술치료사의 개인적 성장이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수행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음악치료사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임상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치료사들의 수행불안을 알아보기 위해서 척도의 일부 문항을 미술치료사에게 알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를 통해 미술치료사를 대상으로 미술치료 상황에서 경험하는 불안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된다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응답 방법을 사용한 양적 연구 방법을 통해

미술치료사의 자기탄력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수행불안의 매개효과(김은지·박보람)

수행불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자기보고식 응답방법은 응답자의 주관적 태도를 객관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지만, 현상에 대한 지각과정이나 행동의 이면에 있는 동기 등과 같은 정보들은 수집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질적인 접근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미술치료사가 경험하는 수행불안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미술치료사를 대상으로 자기탄력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수행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미술치료사가 가져야 할 치료사적 자질 중 자기탄력성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으며, 미술치료사의 자기탄력성이 미술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수행불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자기효능감을 높여 치료사가 치료효과를 높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치료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안을 다루는 치료사 변인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참고문헌

- 강진구·연문희(2005). 단기상담 훈련프로그램이 상담자 자기효능감과 상태불안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6(2), 339-357.
- 강석영(2008). 상담자 자기효능감과 상담성과의 관계에서 상담자 역전이 행동 및 내담자 협력관계의 매개효과. 미간행 박사학위 청구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권석만(2012). 현대심리치료와 상담이론: 마음의 치유와 성장으로 가는 길. 서울: 학지사.
- 김광웅·최명선·김현주(2005). 아동상담자의 발달수준과 자아탄력성 및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대한 연구. 한국인간발달학회 학술대회지, 2005(1), 111-114.
- 김권영·금명자(2009). 상담자활동 자기효능감이 상담단계별 상담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9(1), 464-465.
- 김동민(2012). 음악치료 집단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가 지각하는 애착유형, 자기효능감, 정서적 유대, 수치심, 평가불안 간의 관계.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4(2), 1-27.
- 김봉구·김윤주(2017). 마음챙김명상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및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동아시아불교문화, 30, 327-359.
- 김채연·최외선·김갑숙(2014). 미술치료사의 자의식과 발달수준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미술치료연구, 21(1), 69-88.
- 김현미·최인화·권현용(2010). 청소년 상담자의 직무환경, 자아탄력성,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이 상담자 소진에 미치는 영향. 인문학논총, 15(2), 173-194.
- 김혜성(1998). 회복력(resilience) 개념 개발. 한국간호학회, 28(2), 403-413.
- 박수영·최한나(2013). 상담자가 지각한 상담성과를 가져오는 상담자 요인에 대한 개념도 연구. 상담학연구, 14(5), 2969-2986.
- 박현주·서명옥(2009). 미술치료의 매체활용법. 서울: 학지사.
- 신우열·김민규·김주환(2009). 회복탄력성 검사 지수의 개발 및 타당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0(4), 105-131.
- 신은정(2016). 경력에 따른 유아교사의 자기탄력성, 자기결정성이 유아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 청구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양명희·김성희(2011). 상담자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12(5), 1629-1644.
- 엄외순(2002). 대인불안에 미치는 비합리적 신념, 자아존중감, 그리고 자기효능감

미술치료사의 자기탄력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수행불안의 매개효과(김은지·박보람)

- 에 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호서대학교 대학원.
- 오숙경·박희현(2013). 청소년상담자의 자기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6(2), 153-169.
- 왕미정(2013). 요가수련자의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이소라 (2014). 음악치료 전공생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및 임상불안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지연(2011). 음악치료사의 임상불안과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8(2), 1-20.
- 이훈구 (2004). 사회심리학적 안녕. 서울: 법문사.
- 임고운·김지현(2008). 상담자 발달수준 및 역전이 활용과 상담성과. 상담학연구, 9(3), 987-1006.
- 임은희(2016). 상담자의 교육분석 효과가 상담자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공감과 상태불안의 매개효과.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광운대학교 대학원.
- 전순영(2011). 미술치료의 치유요인과 매체. 서울: 하나의학사.
- 정경아(2016). 청소년의 우울, 불안, 충동성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미간행 박사학위 청구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정푸른(2016). 음악치료사의 심리적 소진과 임상불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검증.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 대학원.
- 조문주(2007). 불안과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상담자의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가톨릭 대학교 대학원.
- 최철환(1997). 집단상담의 초기단계에서 지도자의 자기효능감과 집단내의 구조화가 집단응집력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표경식·조용래·이무석·김학렬·박상학·김상훈(1998). 성취관련 자기불일치와 평가위험 스트레스가 수행불안에 미치는 효과. 신경정신의학, 37(6), 1174-1185.
- 한영주·권경인·김창대·유성경(2012). 낮은 성과를 보인 상담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13(1), 71-97.
- 홍수현·최해림(2001). 상담초기단계에서 상담자의 자기효능감 및 상태불안이 상담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3(1), 31-49.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2015).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5판)

(권준수 등 역). 서울: 학지사. (원저 2013 출판)

- Bandura, A.(1956). Psychotherapist's anxiety level, self insight, and psychotherapeutic competenc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2*(3), 333-337.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ndura, A.(1994). Self-efficacy. In V. S. Ramachaudran (Ed.), *Encyclopedia of human behavior* (pp. 71-81). New York: Academic Press.
- Bandura, A.(2004).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의 자기효능감 (윤운성 등 역). 서울: 학지사. (원저 1995 출판)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lock, J. H., & Block, J.(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 (Ed.),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pp. 39-101). New York & London: Psychology Press.
- Borysenko, J. Z.(2011).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비밀: 불안과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마음의 힘 (안진희 역). 서울: 이마고. (원저 2009 출판)
- Corey, G.(2012). 심리상담과 치료의 이론과 실제(8판) (조현춘 등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저 2009 출판)
- Debra, A. H., Richard, G. H., Harlan, R. J., & Cynthia, L. T.(2006). 사회불안 증의 인지행동치료 (최병휘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저 2000 출판)
- Edwards, D. C.(2014). *Art therapy: Creative therapies in practice series*. London: SAGE Publications.
- Epstein, S.(1972). The nature of anxiety with emphasis upon its relationship to expectancy. *Anxiety: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2*, 291-337.
- Lafferty, P., Beutler, L. E., & Crago, M.(1989). Differences between more and less effective psychotherapists: A study of select therapist variab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1), 76.
- Larson, L. M., & Daniel, J. A.(1998). Reveiw of the counseling self-efficacy literature. *The Counseling Psychology, 26*(2), 179-218.

미술치료사의 자기탄력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수행불안의 매개효과(김은지 · 박보람)

- Leitenberg, H. (2013). *Handbook of social and evaluation anxiety*. New York: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Menninger, W. W.(1990). Anxiety in the psychotherapist.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54*(2), 232-246.
- Nicholson, J., & Clarke, J.(2010). 더 높이 튀어오르는 공처럼: 쓰러지지 않는 인생을 위한 심리학 (노혜숙 역). 서울: 오픈스. (원저 2010 출판)
- Popescu, O. M.(2012). Therapist Variables in Psychotherapy. *Journal of Integrative Research,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1*(2), 21-36
- Renik, O.(1995). The patient's anxiety, the therapist's anxiety, and the therapeutic process. In S. P. Roose & R. A. Glick (Eds.), *Anxiety as symptom and signal* (pp. 121-131). New Jersey: The Analytic Press.
- Rubin, J. A.(2006). 미술치료학개론 (김진숙 역). 서울: 학지사. (원저 1999 출판)
- Schaverien, J.(2000). The triangular relationship and the aesthetic countertransference in analytical art psychotherapy. In A. Gilroy & G. McNeilly (Eds.), *The changing shape of art therapy: new developments in theory and practice* (pp. 55-83). London: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Skovholt, T. M., & Rønnestad, M. H.(2003). Struggles of the novice counselor and therapis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0*(1), 45-58.
- Sobel, M. E.(1982). Asymptotic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pp. 290-312). San Francisco: Jossey-Bass.
- Spielberger, C. D.(1966). Theory and research on anxiety. In C. D. Spielberger (Ed.), *Anxiety and behavior* (Vol. 1, pp. 3-20). New York: Academic Press.
- Spielberger, C. D.(2013). *Anxiety: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Vol. 2). New York: Academic Press.
- The British association of Art Therapy(2017). About art therapy. Retrieved from <http://www.baat.org/About-Art-Therapy>.
- Van Wagoner, S. L., Gelso, C. J., Hayes, J. A., & Diemer, R. A.(1991). Countertransference and the reputedly excellent therapist.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28*(3), 411-421.
- Wadeson, H.(2008). 미술심리치료학 (장연집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저 1987 출판)
- Yulis, S., & Kiesler, D. J.(1968). Countertransference response as a function

of therapist anxiety and as a function of therapist anxiety and content of patient talk.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2(4), 413-419.

Zimmerman, B. J.(2000). Self-efficacy: An essential motive to lear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1), 82-91.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s of Performance Anxiety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Resilience and Self-Efficacy of Art Therapy Experts.

Kim, Eun-Ji* · Park, Bo-Ram**

The purposed of this 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self-resilience of art therapy experts on self-efficacy; furter, it analyzed the mediator effects of performance anxiety on this ability. By using the SPSS 22.0 program, this study analyzed data collected from 137 art therapy experts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method of Baron & Kenny (1986). The research aspects results revealed the following: First, the self-resilience of art therapy experts had positive effects on self-efficacy. Second, the performance anxiety of art therapy experts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esilience and self-efficacy.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clar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esilience and self-efficacy among qualities that art therapist's should have and showed that self-resilience is the main therapeutic factor. And it provides basic data on that a therapeutic factor deals with the anxiety that arises from the treatment situation.

Key words : Art Therapist, Self-Resilience, Self-Efficacy, Performance Anxiety, Mediating Effect

* Department of Creative Arts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Jeonju University, Jeonju, South Korea

** Professor, Department of Creative Art Psychotherapy, Jeonju University, bb4013@hanmail.net